

서울아리랑 로타리클럽, 저개발국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실시 키리키즈스탄을 다녀와서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 회원 장준호



시각장애인과 그 관련회원으로 구성된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회장 류청)은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저개발국 시각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9월30일~10월6일까지 키리키즈스탄 현지를 본 클럽 봉사프로젝트위원장인 장준호 회원께서 방문하시어 여러분께서 소중한 마련해주신 시각장애인 보장구를 키리키즈스탄 현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번 일정 중에는 현지 학생들의 학습프로그램으로 본 클럽의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이녀 큐브협회 회장인 장준호 회원님의 큐브교실도 함께 진행되며 큐브 기증식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처음 홀로 떠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인연 맺었던 키리키즈스탄 다스탄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사진으로만 만나보았던 알튼아이 매니저를 만나기 위해.

서울아리랑 로타리클럽(회장 류청)은 매년 저개발국 시

각장애인 보장구 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지팡이(보통 흰지팡이라고 합니다.)를 키리키즈스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는 다스탄 의원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흰지팡이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방문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키리키즈스탄 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을 돌



보고 가르치는 알튼아이 매니저와 전에 전달했던 큐브로 인연을 맺었었는데 한번 와서 아이들에게 큐브를 가르쳐주면 의미 있겠다라는 요청에 검사검사 시간을 계획해보았습니다. 알튼아이 매니저가 속해있는 국제기아대책기구 키리키즈스탄 지부의 각 센터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지난 2018년 9월30일~10월6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출발한 비행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을 경유해서 키리키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로 갔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낯선 길,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처음 아닌 듯한 표정과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역시 어색했죠. 월요일 아침에 비슈케크 공항에 도착하여 국제기아대책기구에 계신 최진희 선교사님과 함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첫 번째 센터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튼아이 매니저의 통역이 있긴 하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일대일로 풀어서 가르쳐줄 때의 당황스러움도 잠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에 언어의 장벽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역기로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며 큐브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

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7년 전 큐브를 처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가고 다음, 다음 센터들을 방문하는 하루하루가 피곤을 느낄 새도 없이, 힐링과 기쁨의 5박 7일이 되었습니다. 비슈케크와 근처 다섯 개의 센터에는 저에게 힐링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 흰지팡이를 전달하기 위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다스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오랜 친우를 만난 것처럼 함께 저녁 식사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다스탄 의원과의 만남은 더욱더 키리키즈스탄에 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키리키즈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다음을 꼭 기약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드립니다. 🙏